

# 리버티 감옥의 상태



“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었던 이 기간은 조셉 스미스가 그로부터 5년 반이 지난 후 순교하기 전까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. 그의 투옥은 불법 행위였으며 가혹하고도 부당했습니다. . . .

“음식은 형편없었으며 때로 오염되고 너무 더러워 ‘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’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.[Alexander McRae, quoted in B. H. Roberts, *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*, 1:521]. 그들은 네 번이나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심하게 앓아서 여러 날 동안 구토와 정신 착란을 일으키며 생사기로서 해매기도 했습니다.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. 감옥은 ‘악마들에게 둘러싸인 지옥이었다. . . . 우리는 불경한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술에 취해 신성을 모독하고 온갖 종류의 위선과 방탕을 일삼는 광경을 목도해야만 했다.’[in *The Joseph Smith Papers, Documents, Volume 6: February 1838–August 1839*, ed. Mark Ashurst-McGee and others (2017), 361; spelling and punctuation standardized]

. . . 조셉은 그곳에서 겪은 ‘지옥의 참혹함’은 ‘글로도 말로도 또는 천사라 할지라도’ 다 담아 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.[Letter to Emma Smith, 4 April 1839, in *Personal Writings of Joseph Smith*, rev. ed., comp. Dean C. Jessee (2002), 463, 464] 몇몇 기록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 겨울 미주리주에서는 기록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.”(Jeffrey R. Holland, “Lessons from Liberty Jail” [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, Sept. 7, 2008], 1–3, speeches.byu.edu)

“리버티 감옥에서 4개월간 감금된다는 것은 수감자들에게 육체적으로도 무척 힘든 일이었다. 햇빛은 너무 높아서 밖을 내다볼 수 없는 두 개의 작은 철창문을 통해 간신히 새어 들어올 정도였으므로, 장시간 어둠 속에 지내게 되어 그들의 눈은 흑사당했다. . . . 불을 조금 피우도록 허용되었지만 연기가 빠져나갈 굴뚝이 없어 수감자들의 눈은 자극을 받아 더더욱 따끔거렸다. 그들은 귀가 아프고, 신경이 떨렸으며, 하이럼 스미스는 한때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. . . .

남은 수감자들을 가장 낙담시킨 일은 아마도 미주리주 도처로 내몰리며 흩어져서 곤궁에 처한, 그들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후기 성도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었을 것이다.”(“리버티 감옥에서”, 계시를 받은 배경, history.lds.org)

- 만약 여러분이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면, 여러분은 육체적, 정신적,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겠는가?